

# 지역발전 견인할 새로운 동력

## 군산시, 2023년 국가예산 ·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반조성과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2023년 국가예산 및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또한 시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행정인력 정부혁신 컨설팅, 직원 브레인 스토밍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예산 신규사업 55건 1조 6,807억원과 신규시책 39건, 149억원 등 총 1조 6,956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올해 국가예산 신규사업 분야별로는 55건(경제 14건, 문화 11건, 복지 6건, 건설 8건, 농업 12건, 상하수도 4건)에 총사업비 1조 6,807억원 규모로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됐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용항 여항구 확장 개발(499억), ▲친환경 소재 적용 소형선박 제조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200억), ▲화석 전기관 건립사업(388억), ▲어청도~연도 항로 분리(15억),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17억) 등이다.

특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산

업용 자율주행 스카이트 플랫폼 개발,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 등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는 사업들은 국가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9건(149억원 규모)의 신규시책도 함께 발굴해 검토가 이뤄졌으며, 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더불어 할 일 리플렛 제작,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우리동네 한뼘 정원, ▲내 손안의 정책비서 등이 보고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시책사업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등을 꼼꼼히 따져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2023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는 김재운 (주)동우팜투테이블 본부장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5백만원을 기부해 전북 84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고 3일 밝혔다.

##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 군산시, 전북 2번째 김재운 동우팜투테이블 본부장 아너 가입

군산시는 김재운 (주)동우팜투테이블 본부장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5백만원을 기부해 전북 84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고 3일 밝혔다.

김재운 본부장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의 아들로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통해 전북 2호 패밀리 아너로도 이름을 올렸다.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개인 교역 기부자 모인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족 2대, 3명 이상이 가입하면 일원이 된다.

앞서 김동수·조경숙 부부는 2012년 전북 3호, 2018년 전북 5호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으며, 부모의 뒤를 이어 김 본부장이 올해 회원으로 등록

했다. 이들의 누적 기부금은 총 5억 5백만원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 본부장은 “평소 선한 영향력을 강조해오신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기부로 일인년을 시작하게 돼 영광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대에 걸친 패밀리 아너가 군산에서 최초로 탄생했다”며, “이번 가입식을 통해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한 교역 기부자 모임이다. 전북 가입자 78명 중 군산은 13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회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 다이어옴 함께해 ‘봄’ 착한소비 이벤트

### 익산시, 골목상권 10만원 이상 이용... 1만원 당첨 기회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골목상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월 봄맞이 ‘다이어옴 함께해’봄’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이어옴 함께해 이벤트는 3월 한 달간 결제한 총 합산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1,000명을 추첨해 1만원씩 다이어옴 포인트로 지급하는 행사로 익산다이어옴 운영대행사인 (주)KT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동네 가게·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착한소비를 함께 하자는 취지로 익산시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익산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및 소비촉진지원금 등 지급형(정책수당), 구매형(충전금) 상환금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의 응모 없이 자동

으로 이벤트 추천 대상이 된다.

다만, 골목상권의 이용 강화를 위해 1분기 소비촉진지원금 제외업체 50개소 및 병원·약국, 부동산 주유소, 학원·교육 업종의 사용금액은 이벤트 행사에서 제외된다.

이는 2021년 익산다이어옴 지역경제 효과분석 용역 결과 다이어옴을 통한 외부 소비지출 억제효과가 업종별로 달랐다 소비촉진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익산다이어옴은 3월 1일 현재 가입자수는 14만19천78명, 총 발행금액은 6천210억원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민생경제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이어옴의 이벤트와

착한소비가 더해져 힘든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내 이웃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고, 소상공인에게 많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익산다이어옴의 건전한 유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하고 익산시당상품점 운영위원회 구성 중에 있으며, 다이어옴 정책 고도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달 23일 익산다이어옴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착한소비를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익산다이어옴 맞춤형 특별이벤트를 연중 격월로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 군산 시티투어버스, 5일 첫 출발

군산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운행하고 동절기 휴지가에 들어간 군산 시티투어버스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한 새로운 업체 선정 뒤 오는 5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티투어버스는 시가 군산의 관광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체험관광이다.

초중고 학생들의 소풍 및 현장학습,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력적인 군산

관광 상품 중 하나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관광객들이 감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지속적 환기, 탑승 전후 소독 등과 함께 ‘빠어 앳기’ 시행으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인기코스인 ‘고군산시간여행코스’를 통해 당일 투어로 고군산군도와 월명동 일대의 근대문화유산을 두루 관광



할 수 있으며, 그 외 군산과 서천을 잇는 ‘광역코스’와 폭 넓은 군산여행이 가능한 ‘1박 2일코스’도 보연계, 유람선) 까지 총 4개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에 따라 토·일요일에 운영하며 군산시외버스터미널, 군산역에서 출발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 자연 생태의 보고, 익산 만경강 문화관 개관

비옥한 호남평야의 젖줄, 자연 생태의 보고인 만경강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거점이 될 익산 만경강 문화관이 드디어 문을 연다.

시는 3일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익산시의회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 유승광 전북지방환경청장 등 만경강 유역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발열 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테이프커팅, 시설 내부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만경강 문화관은 총 연면적 1,688㎡으로 지상2층, 지하층 규모로 전시관, 다목적실, 야외광장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 1, 2층에 조성되는 전시관은 만경강의 시간, ‘만경강의 자연’, 만경강의 문화 라는 테마로 만경강의

역사, 문화 관광을 종합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2층에는 자전거 및 패러글라이딩 VR 체험관이 조성되어 실제 만경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패러글라이딩하는 듯한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옥상에 조성된 옥상정원과 옥외전망대를 통해 바로 눈 앞에 펼쳐지는 만경강을 만날 수 있다.

다목적광장, 잔디광장, 레저광장, 옥외공연장 등의 야외시설은 문화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만경강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만경강 문화관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수자원인 만경강의 역사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하자검사 대폭 강화 부실공사 척결

군산시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차단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원활한 하자검사 업무 처리를 위해 하자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 배포했으며, 하자검사 및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해 감사부서의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연 2회 시행하는 정기 하자검사 뿐만 아니라 하자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를 대폭 강화해 시공사의 입회하여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여부, 구조물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 철저한 하자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기자

### 익산시, 감염 취약계층

#### 항원검사 키트 무상 지원

익산시가 감염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공을 통해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무상 지원 대상인 감염 취약계층은 어린이집 영유아,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노숙인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이다.

시는 감염 취약계층 약 4만 1,738명을 대상으로, 7억8천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자가진단키트 23만개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미크론변이의 확산세를 감안해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지난 2일 우선 지원했으며, 임신부, 장애인 시설 등에 이달 말까지 배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유행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선제 검사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